

축 사

수확하는 손길이 많은 사람의 미소로 이어지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. 나의 결실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더 넓은 행복을 만들 수 있듯이, 대장경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인류와 문명을 향해 천년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뜻 깊은 일입니다.

대장경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. 이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, 전쟁 중에서도 자비의 가르침을 지켜내자는 고귀한 서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대장경이 현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.

또한 대장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선조들은 살육과 약탈이 횡행하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대장경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. 가장 깊은 어둠은 곧 새벽이 오는 징조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조상들은 그 염원을 한 자 한 자 새긴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대장경이 담고 있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도 분쟁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지 못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.

더불어 대장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문화입니다. 대장경은 바로 이런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. 이와 같은 정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문화는 물론 인류의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자긍심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.

이렇듯 선조께서 쌓으신 공덕을 다시금 세계에 나누는 오늘의 축제는, 다시 현 시대의 공덕이 되어줄 것입니다. 이러한 뜻 깊은 축전에 진력하신 경남도지사님과 해인사 주지스님, 그리고 합천군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

드립니다.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공덕으로 항상 청안하고 지혜와 자비가
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2557년 9월 26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